

2016. 10. 17. ~ 10. 23. 주간

10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무·양배추 생산·출하·가격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미국 동식물검역국, 국내 배 수출단지 점검
· 전남도, 농수산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833만불 계약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토마토 생력재배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한다
· 전남 특화과수 석류 본격 출하 시작

정책동향

· 전남도, 벼 8만 4천여톤 매입해 시장 격리
· 전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한다

사업신청 및 홍보

· 2017년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신청 개시
· 농촌진흥청 누리집 국민의 눈높이로 새롭게 다룹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전반에는 조금 높겠으나, 후반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배추 생산·출하·가격전망
- ▶ 무 생산·출하·가격전망
- ▶ 양배추 생산·출하·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 순천시,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장 보급
- ▶ 광양시, 농산물 종합 가공인력 육성으로 가공산업 발판 마련
- ▶ 담양군, 2017년 벼 주력품종 '신동진'과 '새일미' 선정
- ▶ 고흥군, 지역맞춤형 특화 소득작물 '쌀귀리' 재배확대
- ▶ 무안군, 감 재배농가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 ▶ 함평군, 벼 수탈아 피해 정밀조사 나서
- ▶ 영광군, 산업체와 보리산업 활성화에 박차
- ▶ 진도군, 녹비작물 재배 확대... 땅심 높이고, 경관 효과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1

- ▶ 미국 동식물검역국, 국내 배 수출단지 점검
- ▶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833만불 계약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3

- ▶ 갈색거저리 상품화를 위한 생산단가 절감 건조방법
- ▶ 두유박 및 버섯폐배지의 저장성 증진을 위한 미생물 이용방법
- ▶ 온실 피복재 EVA필름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 ▶ 양파 노균병 예찰법 개선
- ▶ 토마토 생력재배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한다
- ▶ 전남 특화과수 석류 본격 출하 시작
- ▶ 특색(色) 있는 사과·배, 신수요 창출에 앞장서
- ▶ 토종약초 '우슬' 종자 확보를 위한 안전 재배법 확립
- ▶ 카사바줄기칩으로 새로운 느타리 병재배용 배지 개발
- ▶ 감귤 가공부산물, 식용곤충사료로 이용 가능해
- ▶ 축산연구소, 구이용 흑염소고기 육질평가회 개최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37

- ▶ 마을기업운영자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39

- ▶ 전남도, 벼 8만 4천여톤 매입해 시장 격리
- ▶ 전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한다
- ▶ 100만 세대에 달하는 3대 생협, 전남의 청년농업인과 손잡다!

❁ 해외 농업정보 42

- ▶ 대만, 12월부터 인삼 등 수입산 한약재 잔류농약검사 실시
- ▶ 캐나다서 퓨전한식 인기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0. 24.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최근의 활발한 수출 수요로 인해 장 초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풍부한 재고량으로 인해 장 마지막 하락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대두의 상승세에 동조하며 전일 대비 0.4% 상승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세션 동안 200일 이동 평균을 상회하며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 ▶ 2017년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신청 개시
- ▶ 농촌진흥청 누리집 국민의 눈높이로 새롭게 다가갑니다!
- ▶ 한글날 특집 : 틀리기 쉬운 낱말(농업용어)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1	12.4	0.7	16.6	18.4	-1.7	9.6	7.6	2.1	3.9
10. 27.(목)	16.0	13.3	2.7	19.0	19.4	-0.4	13.0	8.3	4.7	1.5
10. 28.(금)	16.5	13.1	3.4	18.0	19.3	-1.3	15.0	8.2	6.8	1.8
10. 29.(토)	13.5	13.0	0.5	16.0	19.0	-3.0	11.0	8.0	3.0	2.1
10. 30.(일)	11.5	12.7	-1.2	16.0	18.4	-2.4	7.0	8.0	-1.0	2.6
10. 31.(월)	12.5	12.3	0.2	17.0	18.0	-1.0	8.0	7.6	0.4	2.4
11. 01.(화)	12.5	11.9	0.6	16.0	17.7	-1.7	9.0	7.1	1.9	7.1
11. 02.(수)	11.0	11.6	-0.6	15.0	17.5	-2.5	7.0	6.7	0.3	6.7
11. 03.(목)	11.5	11.6	-0.1	16.0	17.5	-1.5	7.0	6.6	0.4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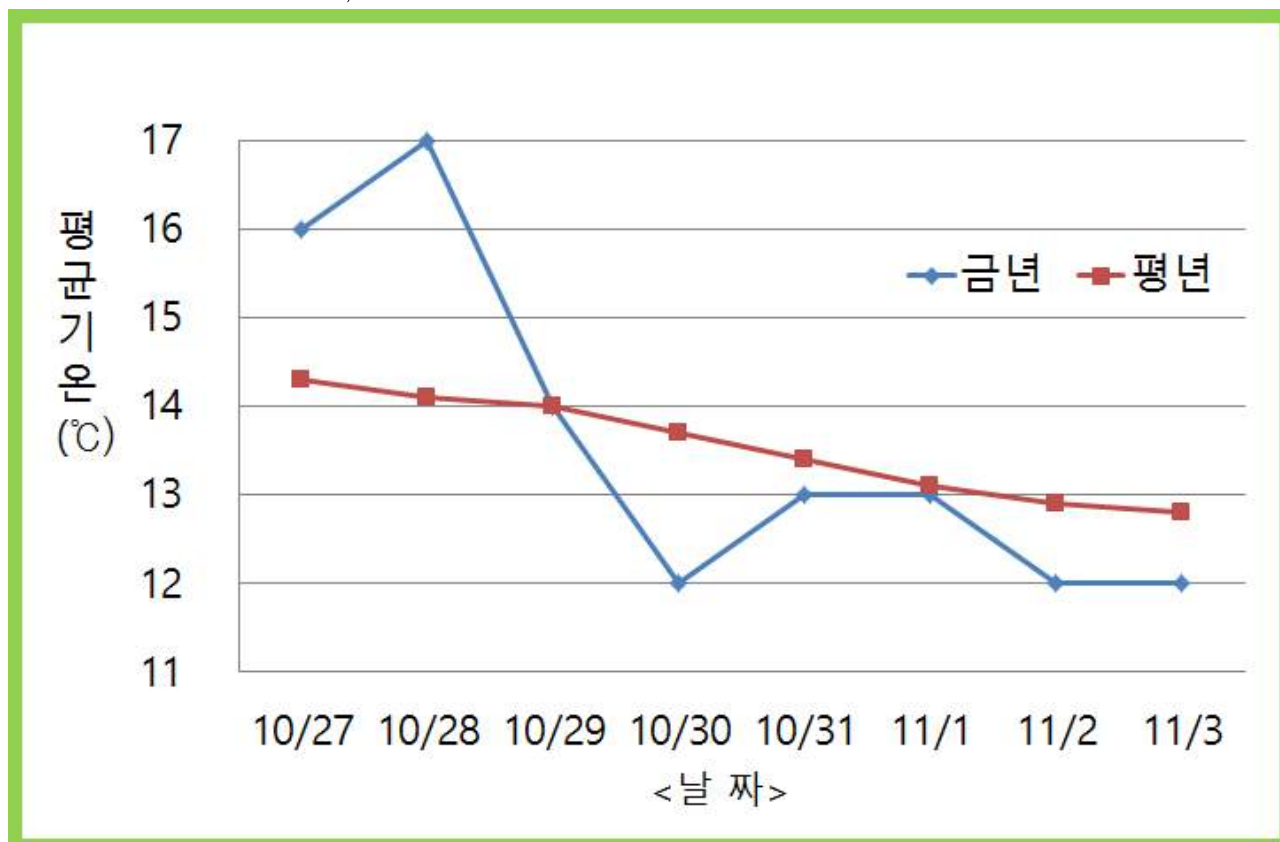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3.6	13.5	0.1	16.6	18.8	-2.2	10.6	9.4	1.2	1.6
10. 27.(목)	16.0	14.3	1.7	19.0	19.7	-0.7	13.0	10.2	2.8	1.5
10. 28.(금)	17.0	14.1	2.9	18.0	19.7	-1.7	16.0	10.0	6.0	1.6
10. 29.(토)	14.0	14.0	0.0	16.0	19.4	-3.4	12.0	9.8	2.2	1.8
10. 30.(일)	12.0	13.7	-1.7	16.0	18.8	-2.8	8.0	9.7	-1.7	2.1
10. 31.(월)	13.0	13.4	-0.4	17.0	18.5	-1.5	9.0	9.4	-0.4	1.9
11. 01.(화)	13.0	13.1	-0.1	16.0	18.3	-2.3	10.0	9.0	1.0	1.4
11. 02.(수)	12.0	12.9	-0.9	15.0	18.0	-3.0	9.0	8.7	0.3	1.2
11. 03.(목)	12.0	12.8	-0.8	16.0	17.9	-1.9	8.0	8.7	-0.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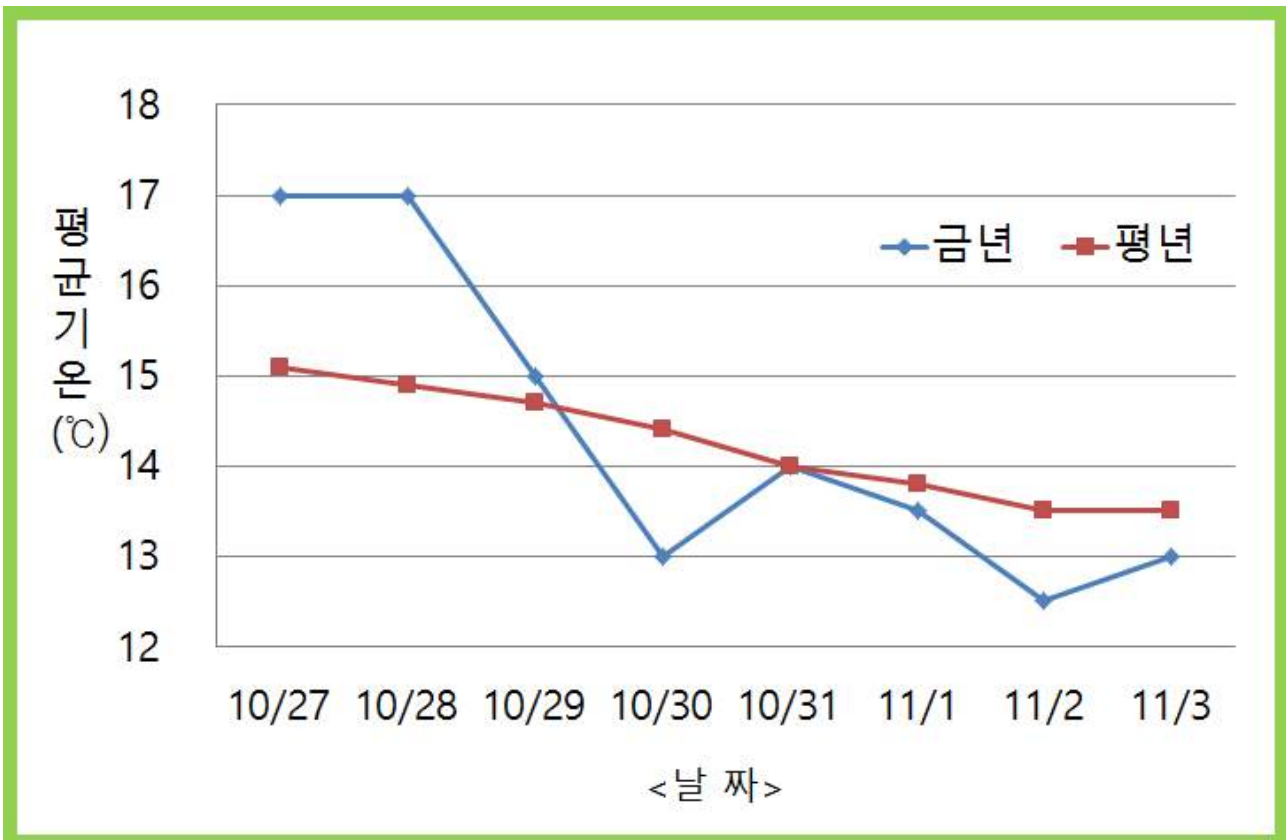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4.4	14.2	0.1	16.6	18.3	-1.6	12.1	10.9	1.2	1.6
10. 27.(목)	17.0	15.1	1.9	19.0	19.1	-0.1	15.0	11.7	3.3	1.1
10. 28.(금)	17.0	14.9	2.1	18.0	18.9	-0.9	16.0	11.6	4.4	1.3
10. 29.(토)	15.0	14.7	0.3	16.0	18.7	-2.7	14.0	11.4	2.6	1.6
10. 30.(일)	13.0	14.4	-1.4	16.0	18.4	-2.4	10.0	11.1	-1.1	2.1
10. 31.(월)	14.0	14.0	0.0	17.0	18.0	-1.0	11.0	10.7	0.3	2.0
11. 01.(화)	13.5	13.8	-0.3	16.0	17.9	-1.9	11.0	10.4	0.6	1.6
11. 02.(수)	12.5	13.5	-1.0	15.0	17.6	-2.6	10.0	10.1	-0.1	1.4
11. 03.(목)	13.0	13.5	-0.5	16.0	17.5	-1.5	10.0	10.1	-0.1	1.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가을배추 생산량 지난해 대비 감소
 - 고랭지배추 추정생산량은 13만 3천~14만 3천톤으로 지난해보다 20~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을배추 추정생산량은 전년보다 5~10% 감소한 130만~130만 6천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격이 크게 낮았던 2014년(3,110원)보다는 생산량이 20~24% 적다.
- 출하전망 : 10월 배추 출하량 지난해보다 감소 전망
 - 10월 출하량은 준고랭지 2기작과 가을배추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19% 적을 전망이다.
 - 11월 이후에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7%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10월 가격 출하지역 확대로 지난달보다 하락할 전망
 - 10월 배추 10kg당 도매가격은 준고랭지 2기작과 가을배추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4,050원)와 평년(4,230원) 동월보다 높으나, 9월 하순(18,470원)보다는 낮은 9,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가격은 가을배추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4,583원/10kg) 높으나, 10월 가격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 재배의향 : 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 지난해보다 감소
 - 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3,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해남이 4% 감소하나, 진도와 제주는 각각 1, 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가을무 재배면적 지난해보다 4% 감소

- 가을무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배면적모형 분석결과 지난해보다 5% 감소한 5,463ha로 추정되었다.
- 가을무 추정 생산량은 44만 5천~45만 3천톤으로 지난해보다 13~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10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20% 감소 전망

- 10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각각 7, 13%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20%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출하면적은 준고랭지 2기작과 가을무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가을무 출하시기가 지연되어 지난해보다 7%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출하량은 가을무 출하면적과 단수가 각각 3, 9%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1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10월 가격 지난달과 비슷하나, 11월은 하락

- 10월 무 상품 18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7,850원)와 평년(8,520원)보다 높으나, 지난달(21,000원)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상·중순 가격은 9월 하순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하순에도 가을무 출하 지연으로 가격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가격은 가을무가 본격 출하되어 지난해 동월(8,490원)보다 높으나, 10월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배추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가을양배추 생산량 지난해보다 감소

- 고랭지양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7% 증가하나,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8%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2% 적은 6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 가을양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각각 6, 2%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7% 적은 2만 3천톤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10월 출하량 지난해보다 감소

- 10월 가을양배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순부터 출하될 가을양배추(서산·무안 등)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5%, 단수는 고온 및 가뭄으로 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전망 : 10월 가격 지난해보다 높으나, 지난달보다 낮아

- 10월 양배추 상품 8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4,050원)보다 높으나, 지난달(8,120원)보다 낮은 7,5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상품 3,190원)보다 높을 전망이다.

□ 재배의향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지난해보다 증가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호남이 2% 증가, 제주는 4%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0. 2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24)	1주일전 (10/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품	쌀(일반계)	20kg	29,000	29,000	33,850	37,200	40,467	↓ 22.0	↓ 28.3
	콩(백태)	35kg	152,000	152,000	152,000	139,500	181,247	↑ 9.0	↓ 16.1
	고구마(밤)	10kg	25,400	25,400	26,650	22,000	22,333	↑ 15.5	↑ 13.7
	감자(수미)	20kg	26,000	25,400	25,200	24,600	24,267	↑ 5.7	↑ 7.1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800	1,000	1,980	390	509	↑ 105.1	↑ 57.2
	양배추	10kg	10,600	11,000	9,125	4,650	5,643	↑ 128.0	↑ 87.8
	오이(다다키계통)	10kg	14,333	31,000	28,750	13,500	17,333	↑ 6.2	↓ 17.3
	애호박	8kg	17,600	30,000	24,900	13,200	16,020	↑ 33.3	↑ 9.9
	토마토	10kg	36,200	39,000	28,300	20,650	29,400	↑ 75.3	↑ 23.1
	당근	20kg	50,000	50,600	44,600	29,300	38,247	↑ 70.6	↑ 30.7
	건고추(화건)	60kg	584,000	584,000	640,000	816,000	919,733	↓ 28.4	↓ 36.5
	풋고추	10kg	46,000	48,000	59,300	19,550	35,760	↑ 135.3	↑ 28.6
	마늘(깐마늘)	20kg	140,000	140,000	140,000	135,000	110,853	↑ 3.7	↑ 26.3
	양파	20kg	19,600	19,400	18,700	28,700	19,640	↓ 31.7	↓ 0.2
	대파	1kg	2,220	2,370	2,518	1,588	1,379	↑ 39.8	↑ 61.0
	파프리카	5kg	29,000	30,800	26,050	13,800	29,427	↑ 110.1	↓ 1.5
	멜론	8kg	25,000	24,400	20,400	18,250	22,197	↑ 37.0	↑ 12.6
	방울토마토	5kg	28,000	30,400	19,700	10,400	18,240	↑ 169.2	↑ 53.5
	수박	1개	11,400	13,400	14,550	7,300	8,633	↑ 56.2	↑ 32.1
과 류	사과(후지)	10kg	38,200	-	-	-	-	-	-
	배(신고)	15kg	35,400	36,800	41,500	37,600	35,240	↓ 5.9	↑ 0.5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24)	1주일전 (10/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5,600	524,000	526,500	530,000	548,667	↓ 0.8	↓ 4.2
	느타리버섯	2kg	13,200	13,000	14,150	10,250	11,483	↑ 28.8	↑ 15.0
	새송이버섯	2kg	9,200	9,800	8,650	8,150	8,357	↑ 12.9	↑ 10.1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80	7,960	7,950	7,796	6,654	↑ 2.4	↑ 19.9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74	1,994	2,175	1,948	1,714	↑ 1.3	↑ 15.2
	닭고기	1kg	6,293	5,620	5,568	5,026	5,786	↑ 25.2	↑ 8.8
	계란(특란)	30개	5,538	5,615	5,537	5,462	5,533	↑ 1.4	↑ 0.1
	우유	1리터	2,525	2,525	2,554	2,547	2,444	↓ 0.9	↑ 3.3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0. 24.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695 천원	5,855 천원	5,882 천원	↓ 2.7	↓ 3.1
	거세	6,350 "	6,327 "	6,909 "	↑ 0.3	↓ 8.0
송아지 (6~7월)	암	2,809 "	2,923 "	2,690 "	↓ 3.9	↑ 4.4
	수	3,377 "	3,638 "	3,357 "	↓ 7.1	↑ 0.5
육우(600Kg)		2,922 "	3,133 "	3,508 "	↓ 6.7	↓ 16.7
젖소수송아지(7일령)		333 "	333 "	312 "	- 0	↑ 6.7
돼지(110kg)		354 "	353 "	328 "	↑ 0.2	↑ 7.9
육계(원/kg)		2,103 원	2,210 원	1,415 원	↓ 4.8	↑ 48.6
계란(원/특란10개)		1,204 "	1,213 "	1,193 "	↓ 0.7	↑ 0.9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703원/마리 (△353) * (5,658 - 2,332 + 3,377 = 6,703)

(¹⁵년 생산비) (¹⁵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장 보급

- 순천시 낙안 오이재배단지에서 ICT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시연회가 19일 박석호 농가에서 열렸다.
- 이번 시연회는 겨울 취청오이 전국 최고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순천대표 특품 낙안 오이 재배농가와 관내 원예분야법인, 작목반 대표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선보인 ICT융복합 기술은,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라 작물생육환경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컨트롤로 (개폐·제어)설치로 실시간 5단 변온관리와 기온변화 예측관리를 통한 인공지능 기능으로 정밀한 환경제어가 가능하다.
- 특히 실시간 알림 서비스(지킴이)기능은 저·고온, 정전 등 기계이상 발생 시 지정된 3명에게 화상 및 음성통보로 돌발피해 상황에 사전 대처가 가능하다.
- 이번 시연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기온차가 심할 때는 하루 수십 번 농장을 들락거렸는데 이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농장 관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 시 관계자는 “기존 농업기술에 ICT기술을 융복합 하는 새로운 농업 혁명인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선진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농산물 종합 가공인력 육성으로 가공산업 발판 마련

- 농식품가공 창업교육 수료식 가지고 가공협동조합 설립도 논의 -

- 광양시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공인력 육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포함 총 13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 시는 1차적으로 가공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총 20회에 걸쳐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지난 10월 18일에 수료식을 가졌다. 교육은 창업마인드 배양과 식품관련 법규, 창업계획서 작성, 농가 현지코칭, 농산물가공 공동조직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의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과 상품개발 품평회 등으로 진행됐다.
- 수료식 후에는 이승재 학생장을 중심으로 내년에 완공될 가공시설의 활발한 이용을 위한 광양시 가공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 한편 광양시 농산물종합가공공장은 오는 11월에 착공해 가공설비 시운전을 거친 후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완제품은 가공협동조합을 통해 제조, 판매한다.
- 식품가공 희망자는 반드시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수료자 중 가공식품 생산을 원하는 농업인은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2017년 벼 주력품종 ‘신동진’과 ‘새일미’ 선정

- 읍·면 대표농가 의견 적극 수렴 ... 밥맛 좋고 소비자 선호도 높아 -

- 친환경 농업의 메카 담양군이 밥맛이 우수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동진’과 ‘새일미’를 내년 주력품종으로 선정하고 담양쌀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에 나선다.
-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읍·면대표 농가와 농민단체, 유관기관, 농협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주력품종 선정 협의회 개최하고, 내년 벼 주력품종으로 ‘신동진’와 ‘새일미’를 선정했다.
- 이번 품종선정은 읍·면 대표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품종별 특성 및 12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결과 등 품종별 주요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최종 결정됐다.
- 특히, 품종 선정에 앞서 군은 현 주력품종인 ‘새누리’의 재배면적이 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51%(3,356ha)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새누리’의 품종 변경 시 종자 수급문제 및 농가혼란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 대체품종을 ‘새일미’로 예비 선정해 재배환경 적합여부, 작황 등을 검토해 주력품종 교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강경원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은 “내년도 주력품종이 결정됨에 따라 ‘신동진’과 ‘새일미’ 품종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기 모내기과 영농지도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고품질 벼종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 품종 선정현황 및 품종별 재배관리법 등을 지도해 담양쌀이 고품질브랜드 쌀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담양군

■ 고흥군, 지역맞춤형 특화 소득작물 ‘쌀귀리’ 재배확대

- 2017년 38→41ha 확대, 2억원 소득달성 목표 -

- 고흥군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위한 지역맞춤형 시책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으로 농림어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특히, 군은 지역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목별 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 일환으로 쌀귀리 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 쌀귀리 단지 조성사업은 콤바인과 트랙터 등 자체 농기계를 구비한 8농가로 구성된 거해영농조합법인(대표 조공선)이 남양면 권역 38ha에 조생벼를 수확한 답(畓)에 이모작으로 쌀귀리를 파종하여 다음 해 6월에 거두어들인 후 바로 조생벼를 이앙하는 사업이다.
- 이에, 고흥군은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농업 부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거해영농조합법인에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쌀귀리 종자 및 쌀귀리 전용 곡물 건조기 구입을 위해 7천 5백만원을 지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 거해영농조합법인에서는 올해 88톤의 쌀귀리를 생산하여 1억 4천 만원의 농업 부가 소득성과를 거뒀고, 행정적 지원에 고마움을 나누기 위해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3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 군 관계자는 “지역맞춤형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2017년에는 쌀귀리 생산규모를 41ha 이상으로 확대해 2억원의 소득 달성을 목표로 영농조합법인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쌀귀리 안정생산을 위해 10월 20일까지 2017년산 쌀귀리 재배 의향조사를 실시 후 11월 15일까지 적기 파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 무안군, 감 재배농가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 감 가공·저장 기술교육 및 우수 가공업체 방문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18일 FTA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 가공·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과수 통합마케팅 조직을 운영하는 감 재배·생산·판매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 이번 견학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 조지형 박사의 감 가공 및 저장 기술교육과 연구소 가공시설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감 가공 전문업체의 농가 소득증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예년보다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들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 특히 상주감연구소의 조지형 박사는 면역력 증진, 모세혈관 강화, 피부개선 등 감의 기능적인 우수성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과수농가 스스로 FTA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안군 관계자는 “과수농가들이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가공·판매, 저장기술 교육을 통해 판매·출하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무안군은 감 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40ha에 24농가가 참여해 과수통합마케팅을 조직하고 있으며, 올해 700여톤을 생산해 약 11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무안군



■ 함평군, 벼 수탈아 피해 정밀조사 나서

- 안병호 군수, 모든 행정력 동원해 피해 최소화 할 것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벼 수탈아(이삭에서 낱알이 싹트는 현상) 피해에 대해 전 공무원을 동원해 정밀조사에 나섰다.
- 19일 군에 따르면, 전체 벼 재배면적 7,950ha 중 3,500ha(44%)가 태풍과 잦은 비로 피해를 입었다. 수탈아 피해를 입은 쌀은 식용으로 부적합해 정상적인 벼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다 품질이 떨어져 정규 수매가 불가능하다.
-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수탈아 피해까지 입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군은 애타는 농심을 위로하고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나서 농가별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 부서장들이 앞장서 9개 읍·면의 피해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를 지급하고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신속한 손해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농협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별도 수매와 복구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안병호 군수는 “수확기임에도 쌀값 폭락에 이은 수탈아 피해로 농민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한 피해조사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함평군

■ 영광군, 산업체와 보리산업 활성화에 박차

- 식량원·영광군·노바렉스와 새싹보리 연구협력 협약 체결-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국립식량과학원은 19일 전남 영광군청(군수 김준성), (주)노바렉스(대표 이상준)와 보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보리 이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원료공급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새싹보리 원료곡 생산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연구기관,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과 보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국립식량과학원은 새싹보리 관련 특허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하게 된다. 또한, 영광군은 보리종자와 새싹보리 원료의 생산단지를 조성, 공급하고, (주)노바렉스는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원료를 공급받아 간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 산업체와 농가 간 계약재배를 실시하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리의 싹을 틔운 새싹보리에는 폴리코사놀,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등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물질이 들어 있다. 이중 간 기능 개선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사포나린 성분은 분말 100g당 1510mg 이상 함유돼 있다.
-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앞으로도 국내산 보리품종을 이용해 새싹보리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보리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진도군, 녹비작물 재배 확대... 땅심 높이고, 경관 효과

- 진도군이 땅심을 높이고 농촌 경관을 가꾸기 위해 자운영과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 재배면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 녹비작물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를 줄이는 한편 농촌 경관을 가꾸는 데도 효과가 있다.
- 지원조건은 국비 20, 전남도비 18, 군비 62%이다. 지난해 38농가 65.3ha에서 올해는 80농가 157ha로 면적과 농가수가 대폭 증가했다.
- 내년에는 1읍·면 1푸른들 가꾸기를 위해 7개 읍·면(1개 읍·면당 40ha)에 녹비작물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녹비작물의 파종 시기는 헤어리베치와 자운영은 9월 하순이며, 녹비보리와 호밀은 벼 수확 후인 10~11월 상순이 적기이다.
- 군은 작물별 파종이 제때에 이루어지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 파종단 7개를 운영하고 있다.
-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진도군 농업·농촌 중기계획과 연계해 녹비작물 재배를 더욱 확대해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과 땅심을 살리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진도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미국 동식물검역국, 국내 배 수출단지 점검

- 나주·신안 등 수출단지 6개소 현장방문... 수출검역요령 준수 확인 -

- 미국의 동식물검역국(APHIS)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배의 주요 수출단지를 직접 방문해 수출검역요령 준수를 확인하고, 대미 수출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농협과 배 수출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이 2013년 이후 3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 나주와 신안 등 주요 대미 배 수출단지 6개소를 현장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병해충 여부와 선과장 관리, 한·미 수출검역요령(Work Plan) 준수 여부다.
- 또한 13일 충남 천안에서는 APHIS의 총괄 담당인 Steve Crook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인 Kara Spofford 등 미국 동식물검역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QIA)가 수출검역절차 간소화 및 현지검역 옵션 도입 등 우리 배의 대미 수출확대를 위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 수출업계는 이번 미국 동식물검역국의 국내 배 수출단지 방문을 계기로, 미국 당국과 우리 배 수출산지 간의 원활한 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국시장으로의 우리 배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전남도, 농수산물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833만불 계약

- 중국·미국 등 9개국 24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 전남도는 지난 10월 20일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 및 신규거래선 확보를 위해 중국·미국·일본 등 9개국에서 24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도내 72개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이 참가하여 총10명의 바이어와 833만불의 수출계약(MOU포함)을 체결했다.
- 참가 업체별 주요 수출협약은 나주 골든힐이 미국 KEEE TRADING과 300만불, 고흥 한성푸드가 일본 해태퍼시픽과 200불, 강진 푸드코리아가 미국 WOOGO LLC와 100만불, 순천 창대푸드가 태국 에이스푸드와 100만불 등 총 700만불이다.
- 수출계약은 담양 안복자한과 한과류 50만불, 장성 북하특품사업단이 장류 29만불, 순천 마린테크노가 콜라겐 제품 26만불, 담양 명진식품이 스낵류 13만불, 고흥 한성푸드가 유자차 10만불, 해남 OK라이스센터가 쌀 5만불, 총 133만불에 이른다.
- 이번 전남의 농수산물식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aT전남지사, 전라남도 해외통상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추진했다. 특히, 전남도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를 바이어상담장에 상주시켜 수출애로사항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농수산물식품의 FTA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가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 아울러 현장에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총 240여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 졌고, 바이어들의 수출기업 현장방문에서 추가 상담이 진행됨으로써 향후 수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갈색거저리 상품화를 위한 생산단가 절감 건조방법

□ 개발기술 내용

○ 갈색거저리 최적 건조조건 제시

- 갈색거저리 유충을 채취한 후 동결시킨 다음 40℃에서 72시간 건조하여 수분 함량 10% 미만으로 유지
- 건조온도가 높을수록 지방 함량은 많아지나 아미노산 함량은 50℃ 이상 온도에서는 낮아지며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열풍 40℃ 건조에서 가장 높음
- 동결건조보다 열풍 40℃ 건조 시 건조비용 3배 이상 감소

구분	40℃	50℃	60℃	70℃	80℃	동결건조
지방(%)	32.0	32.2	31.8	32.6	38.0	34.6
총 아미노산(%)	7.13	2.91	3.68	2.76	2.59	7.46
필수아미노산(%)	3.00	1.36	1.65	1.25	0.99	1.62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곤충 사육농가 및 가공업체에 교육, 기술이전 및 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생산비 절감 : 동결건조 대비 71% 감소(동결건조 3,283천원/100kg)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김현진

■ 두유박 및 버섯폐배지의 저장성 증진을 위한 미생물 이용방법

□ 개발기술 내용

○ 제조 조건

- 전남축산연구소 또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에 발효 미생물(*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 JLRI 01, KCCM 11443P, *Bacillus amyloliquefaciens*, *Galactomyces geotrichum*) 분양 요청
- 각 미생물 전용배지에 접종 후 호기적 또는 혐기적 조건에서 30℃, 2~3일간 배양
-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제조 시 미생물 접종량
 - 두유박 : *G. geotrichum*(효모) 0.5% + *B. amyloliquefaciens*(고초균) 0.5%
 - 버섯폐배지 : *L. pseudomesenteroides* JLRI 01(유산균) 0.5% + *G. geotrichum*(효모) 0.5%
- 공기 유입이 없는 밀폐된 용기에 상온에서 7일간 배양



【부패된 두유박(대조구)】



【발효 두유박(처리구)】



【부패된 버섯폐배지(대조구)】



【발효 버섯폐배지(처리구)】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농업지도기관 정보 제공 및 축산농가 현장기술 자료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사료 저장성 증진 효과 : 낮은 pH(4~5) 유지, 사료 내 유해 곰팡이 증식 억제
- 사료 품질 개선 : 유산 함량 증가(두유박 64.7, 버섯폐배지 74.6%)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구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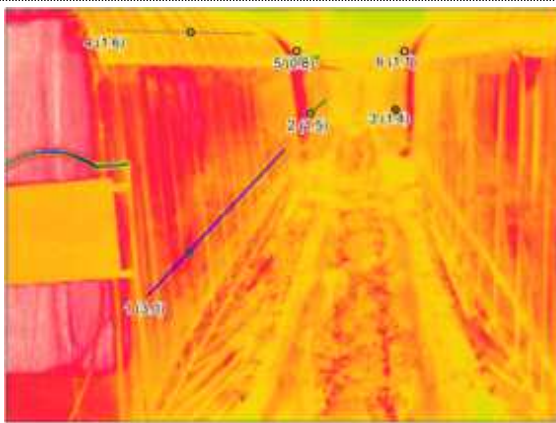
■ 온실 피복재 EVA필름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

□ 연구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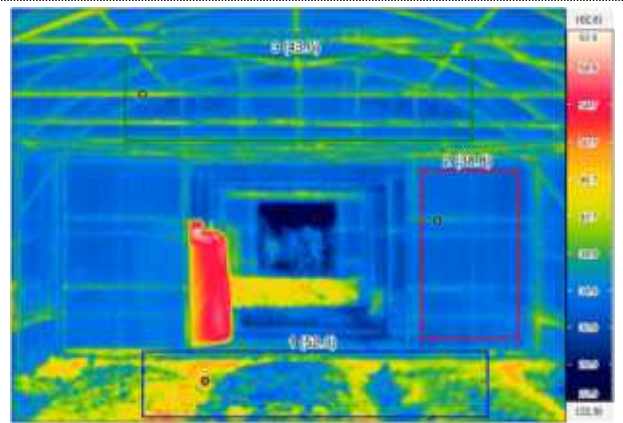
- 전남시설원예면적 4,621ha 중 가온면적이 1,985ha임
- PE필름이 3,752ha로 81%를 차지하여 에너지손실의 원인임
 - PE필름은 보온력과 광투과율이 떨어지나 가격은 4,150원/kg으로 저렴함
- EVA 필름은 5,700원/kg으로 PE필름보다 1,550원 높음
- 온실 피복재별 에너지절감 효과 구명 시험 필요

□ 정책제안 내용

- 건의부처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 에너지절감사업 지원 대상에 온실피복재 EVA필름 포함
 - 전남 시설온실 가온면적 1,985ha 중 PE피복면적 1,607ha를 EVA로 교체
 - 소요예산액 : 915백만원



【피복재재별 방열량】



【EVA 필름 온실내부 온도】

□ 정책제안 반영 후 기대효과

- 전남 시설온실 면적 4,621ha 중 PE필름 가온면적 1,607ha를 EVA로 교체하면 연료비 524천원/10a 피복재비 478천원/10a으로 연간 100만원/10a절감으로 전남지역 전체 16억원 절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나택상, 김효중

■ 양파 노균병 예찰법 개선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병해충의 돌발은 재난성격을 띠며 대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음
- 현재 예찰방법으로는 현장에서 쉽게 예찰이 어려워 개선 필요

□ 제도개선 내용

- 건의부처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 건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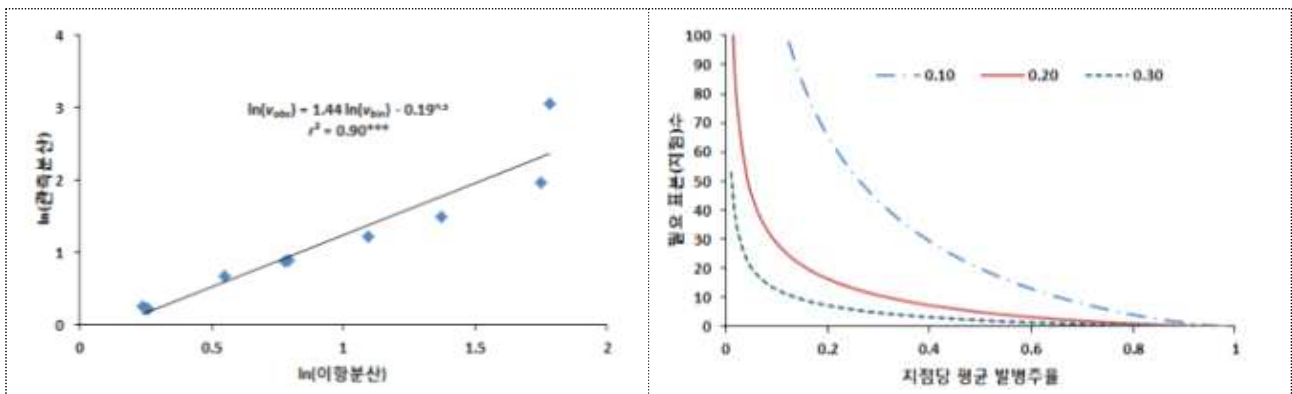
- 양파 노균병 예찰법 개선

- 기존 : 포장 전체 재식 포기수에 대한 병든 포기수를 조사하여 병든 포기율 산정

$$\text{※ 병든 포기율(\%)} = (\text{병든 포기수} / \text{조사 포기수}) \times 100$$

⇒ 전체 재배면적 중 발생면적 비율을 달관으로 조사하여 병든 포기율로 환산 입력

- 변경 : 발생초기(이병주율 4%)에는 포장당 6주씩 임의 60지점을 조사하고 중기(10%까지)에는 30지점, 후기(30%이상)에는 10지점을 조사하면 됨



□ 제도개선 반영 후 기대효과

- 표준화된 조사체계 구축으로 예찰정보의 통일성 및 정확성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 토마토 생력재배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한다

- 토마토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화 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

- 보성군(군수 이용부)과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10월 18일 보성군 조성면 싱싱농원(대표 정경모)에서 방울토마토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중간평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이날 평가회에서는 전남지역 토마토 재배 농업인 및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하여 토마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 투입기술에 대한 효과설명 및 현장시연 등이 실시됐다.
- 금년에 추진한 토마토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 사업으로 토마토 정식, 유인, 정지, 수확, 철거 등 재배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레일 및 운반차를 이용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악성노동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온풍기에 배기열 회수장치 설치하였다.
- 또한 병해충 방제 노력을 절감 및 고온기 하우스 온도 하강으로 고품질 토마토 생산하기 위한 저압포그시스템 설치, 재배시설을 지면베드에서 하이베드로 교체하여 온풍기 덕트가 그 아래 위치하게 하여 근권난방도 가능하게 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생산비 절감형 토마토 재배 시스템 보급으로 정식, 유인, 정지, 방제, 수확, 철거 6개 주요 작업에 소요되는 10a당 노동 투입시간을 총 1,042시간에서 765시간으로 26.6% 절감할 수 있고, 폐열을 재활용하여 난방비를 20% 줄여, 그로 인한 총 생산비는 24.6%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 특화과수 석류 본격 출하 시작

- 국산 친환경 석류 드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 특화과수인 친환경 석류 수확기에 접어들어 주산지인 고흥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석류 과일에는 갱년기 여성건강과 항산화 등의 효과가 뛰어난 엘라그산과 식물성 에스트로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국내 소비량 대부분은 미국과 이란에서 대량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고 국산은 매우 적다.
- 현재, 전남 도내에서 약 175ha(전국 200ha의 88%)의 석류가 재배되고 있으며, 겨울철이 따뜻하여 동해가 적은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고흥지역 석류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대다수 농가가 친환경 재배하여 생산하고 있다.
-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남 도내에서 생산되는 석류는 주로 신맛이 나는 신석류로 수입산 단석류 보다 건강에 유익한 유기산(구연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도내에서 생산되는 석류는 주로 친환경으로 재배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유기산 함량이 높아 생과 보다는 주스, 차, 과일주 등으로 가공하여 이용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문영 연구관은 전남의 석류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 석류의 홍보를 강화하고, 도내 기후조건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친환경,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특색(色) 있는 사과·배, 신수요 창출에 앞장서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란색 사과와 녹색 배 품종을 개발해 보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대표적으로 사과는 '황옥', '그린볼' 품종, 배는 '슈퍼골드', '그린시스' 품종이 있다.



【황옥】

【그린볼】

【슈퍼골드】

【그린시스】

- 사과 '황옥'은 9월 하순에 익는 품종으로, 당도(16.5°Brix)와 산도(0.61%)가 높아 맛과 식감이 좋고 저장성도 우수한 품종이다. 과실 무게는 229g 정도다.
- 노란색 품종이기에 붉은색을 내기 위한 잎 따기나 과일 돌리기 등과 같은 작업이 필요 없어 노동력이 훨씬 적게 든다. 성숙기에 기온이 높아 붉은색을 띠기 어려운 남부지역에서도 재배가 무난하다. 2009년 개발해 지난해 봄부터 농가로 묘목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묘목 보급 초기로 경북 김천에서 대략 6ha 정도 집단 재배하고 있다.
- 사과 '그린볼'은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익는 품종으로, 당도는 14°Brix이며 과실 무게는 327g 정도다. 여름이 끝나는 시기에 맛볼 수 있는 녹색 사과로 단맛과 신맛이 조화된 품종이다. '황옥'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적게 들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 지역에서도 재배 가능한 품종이다.



- 수확기가 비슷한 붉은색 사과 '홍로'와 동일 상자에 포장해 판매한다면 시각적인 효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개발해 경남 거창지역에서 집단 재배하고 있다.
- 배 껍질색은 황갈색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싱그러운 녹색 껍질을 가진 '슈퍼골드'는 과일 풍미가 우수하다. 새콤한 첫 맛을 시작으로 상큼한 여운까지 느낄 수 있다. 기존 배에서 경험했던 단조로운 맛에서 벗어난 새로운 맛의 품종이다.
- 9월 상·중순부터 수확 가능하며 무게 570g 정도의 중형과로 높은 당도(13.6°Brix)와 산미가 조화돼 식미가 우수하고 저온에서 6개월 이상 유통할 수 있다. 2008년 개발했으며 전국적으로 묘목을 보급하고 있다.
- 배 '그린시스'는 9월 하순에 익는 460g 정도인 중소형 품종으로 당도(12.3°Brix)는 그리 높지 않지만 입안을 상쾌하게 만드는 특유의 청량감이 있어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 특히 단일 병해로 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검은별무늬병에 강한 품종(감염률 3.3%, 대조품종 '신고' 감염률 69.4%)으로 약제 및 노동력 절감으로 과수원 경영비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2년 개발해 전국적으로 묘목을 보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개발한 품종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산지 시·군에 품종을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앞으로 급식용 작은 사과 품종 보급에도 노력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열매숙기가 필요 없는 품종, 우수한 만생종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토종약초 ‘우슬’ 의 종자 확보를 위한 안전 재배법 확립

- 10월 상순 채종하면 채종량 2.3배 높아 농가소득 795천원/10a 증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우리 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토종 약초 쇠무릎(우슬, 牛膝) 종자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정 채종기술을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 우슬은 주로 신경통 한약재로 소비량이 증가 추세이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80%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채종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종자 확보가 곤란하여 재배면적 확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종자 안정생산 재배법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채종시기를 구명하고자 흑색 비닐로 피복한 다음 4월 하순에 파종하여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다.
- 대부분 재배농가는 개화정도가 50% 개화되었을 때 개화 후 30일(8월 중순, 종실량 18kg/10a)에 일찍 채종하고 있는데 뿌리 비대가 되는 시기인 개화 후 75일(10월 상순)에 채종하는 것이 지상부 생육량이 많아 채종 수량이 2.3배 더 많았다. 또한 약재로 쓰이는 말린 뿌리 수량도 8월 중순 채종(232kg/10a)보다 10월 상순에 채종하는 것이 5% 정도 증수되는 효과를 얻었다.
- 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박사는 “우슬은 채종 적기를 놓쳐 충실한 종자수확이 어려워 우량종자 생산이 유리한 시기인 10월 상순에 채종하는 것이 8월 중순에 일찍 채종(230천원/10a)하는 것보다 종자 생산량과 말린 뿌리 수량이 높아져 10a당 795천원의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 우슬은 우리 도 장흥·화순·강진지역에서 18ha 재배되고 뿌리에 들어 있는 사포닌, 엑디스테로이드가 진통, 항염증,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어 신경통 예방으로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약재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카사바줄기칩으로 새로운 느타리 병재배용 배지 개발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재료로 카사바 줄기칩을 첨가한 새로운 배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느타리 병 재배 배지재료로 톱밥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톱밥은 양분 함량이 적어 면실박처럼 양분 함량이 많은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야 했다.
- 이로 인해 배지 비용이 많이 들면서 계속된 면실박의 가격 상승으로 버섯 생산비가 오르는 요인이 됐다.
- 이에 버섯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톱밥 사용량의 33%를 카사바 줄기칩으로 대체한 새로운 배지를 개발해 농가현장에 적용했다.



【카사바 생육광경(줄기)】



【카사바줄기 분쇄물】

- 배지는 5,000병용 배지혼합기에 카사바줄기칩 240kg을 넣고 그 외 활엽수톱밥, 면실피, 비트펄프 등은 기존보다 용량을 줄여서 만든다.
- 수분함량은 69%로 조절해 1,100ml 병당 630g 정도로 병에 넣으면 된다.

- 이렇게 만든 배지로 느타리 ‘춘추’ 품종을 재배한 결과, 수량이 1,100ml 병당 243g으로 카사바줄기칩을 넣지 않은 233g보다 10g 정도 많았다.
- 또한 병당 재료비를 6.3% 줄여 생산비가 연간 1만병당 2천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량 증가액을 포함해 5천4백만원의 소득증가가 됐다.
- 농촌진흥청 버섯과에서는 20일 경기도 안성시 한마음농원에서 새로운 배지 개발 관련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는 버섯 재배농가와 관련 업계, 각 도 농업기술원, 농업 기술센터의 버섯담당자들이 참석해 버섯 생육상태를 평가했다.
- 한마음농원 노익창 대표는 “새로운 배지에서 재배하니 비싼 면실박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배지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버섯 수량은 오히려 많아져 좋았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버섯과 정종천 연구관은 “좋은 버섯 배지재료를 구입 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새로운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톱밥 사용량을 줄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라며, “버섯 수확 뒤 배지는 소 사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감귤 가공부산물, 식용곤충사료로 이용 가능해

- 식용곤충 꽃벙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먹이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감귤을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을 이용해 식용곤충용 사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해마다 감귤은 주스용 등으로 약 7만~10만톤 정도 가공하며, 이때 발생하는 가공부산물은 일부분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대부분은 폐기하고 있어 별도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 감귤 가공부산물에는 감귤의 기능성 성분이 그대로 함유돼 있어 이를 2차 가공해 사용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이번에 개발한 곤충사료는 참나무에 감귤부산물을 혼합해 만든 것으로, 감귤 가공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곤충사료의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다. 기존 곤충용 사료는 참나무를 주성분으로 발효톱밥을 만들지만, 감귤 가공부산물을 첨가하면 참나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 감귤 가공부산물을 함유한 발효톱밥은 약 30일 동안의 1, 2차 발효과정을 거쳐서 생산하게 된다.
- 감귤 가공부산물을 함유한 발효톱밥을 꽃벙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에게 60일 동안 먹인 결과, 기존 참나무 발효톱밥 사료를 먹인 처리군보다 무게가 약 1.8배 정도 증가됐고 생존율도 약 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감귤 가공부산물을 함유한 발효톱밥은 참나무 발효톱밥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21% 높았으며, 또한 이를 먹인 꽃병이에서도 폴리페놀 함량이 18% 높게 나타나 식용곤충의 약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유해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물질 중 하나다.
-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귤 가공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고부가가치 식용곤충산업의 유용한 사료용 소재로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박경진 농업연구사는 “감귤 가공부산물이 식용곤충 사료로 유용한 소재임을 확인했다”라며, “감귤 가공 부산물을 곤충사료로 이용하면 함유한 기능성분들도 활용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돼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꽃병이(희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생육 15일 경과 후 생장 모습】



■ 축산연구소, 구이용 흑염소고기 육질평가회 개최

- 구이용 흑염소고기 생산기술 개발로 흑염소 산업 활성화 기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흑염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구이용 흑염소고기의 맛과 품질에 대한 관능 평가회”를 흑염소 협회전남도지회장, 대학교수 등 축산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8일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 이번 행사는 탕이나 수육위주의 흑염소고기 소비패턴을 구이용 소비까지 다양화하여 소비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선택의 기회와 사육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축산연구소에 따르면 흑염소고기를 구웠을 때 딱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14년부터 3년간 수행한 결과, 비육 흑염소의 거세시기는 생후 5개월령이 적합하고 자가 배합사료의 옥수수 첨가 비율은 25%가 구이용 고기생산에 최적임을 확인하였다.

○ 이날 육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발된 흑염소고기는 고기가 딱딱해지는 정도가 개선(약 33)되었으며 소고기(근내지방 약 15)에 비해 기름기가 적고(약 7%) 담백하며 식감 또한 좋아 최근 지방 과다 섭취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보양 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구이용으로 소비형태가 전환됨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되어 소비증대에 따른 사육규모 확대 및 흑염소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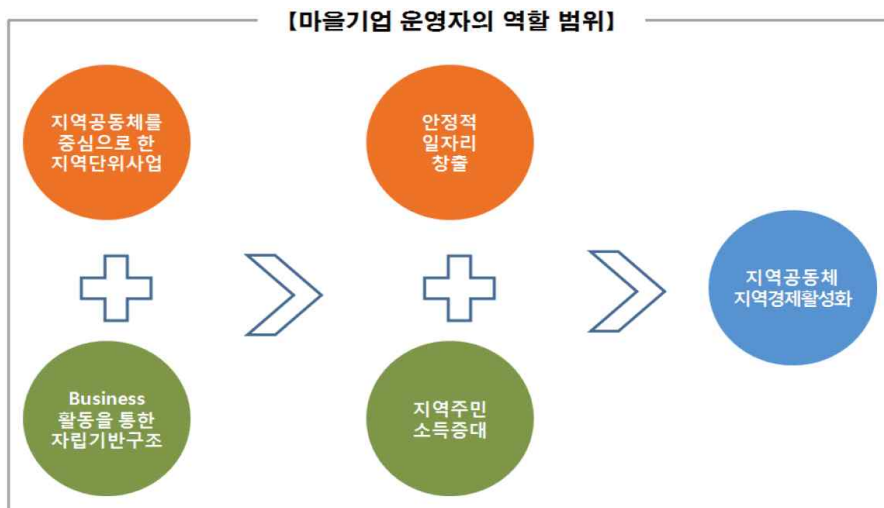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7.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마을기업운영자

□ 어떤 일을 하나요?

- 마을기업 운영자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 최근에는 친환경녹색에너지, 생활복지, 다문화 등 마을기업의 영역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관련 전문지식도 필요합니다.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마을기업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매출액은 1조 2천억원, 고용인력은 3만 5천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칭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지원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개소수(개수)	867	1,249
매출액(억 원)	11,392	1,003
고용인원(명)	24,748	10,281
기준연도(년월)	2013. 12.	2014. 12

자료 : '14년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마을기업 고용인원 및 매출액 통계자료(행정자치부)

○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사업목표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발전도모	취약계층 서비스, 일자리 제공
사업주체	지역주민(지역공동체)	사회적 사업가(취약계층 고용)
사업수단	지역특화자원 발굴·활용→창업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
지역성	공동체 및 지역단위	지역적 개념 없음
지원내용	시설비, 컨설팅비 2년간 8천만 원	인건비 최대 5년 지원 → 예비(2년), 사회적기업(3년)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 마을기업운영자는 주로 지자체가 전문교육, 컨설팅 기관에 교육 위탁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권역단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을 위임하거나 귀농·귀촌자 중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마을기업에서 채용하여 운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마을단위보다는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시·군 전체마을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전남도, 벼 8만 4천여톤 매입해 시장 격리

- 전남도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조곡) 8만 4천여톤을 10월 말부터 매입,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국 매입량(34만여톤)의 24.6% 규모다.
- 이는 그동안 전남도는 연이은 풍작에 따른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수요 초과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매입을 해주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때 강력히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 이번 시장격리 매입량은 수확기 예상 생산량을 적용한 잠정 물량이며, 앞으로 실수확량이 확정 발표되는 11월 중순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장격리 매입 물량은 지난 9월 시·군에 배정한 공공비축미 12만 3천톤 매입과 함께 세부 일정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와 동일하게 우선지급금으로 조곡 40kg 포대당 4만 5천원을 매입 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11~12월)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2017년 1월께 차액을 정산해 지급한다.
-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과 농협RPC 자체 매입 등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 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한다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농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무안 (주)에프엔디, 영암 한국제다영농조합법인, 해남 땅끝농협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 농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식품 첨가물과 반(半)가공품을 생산해 식품외식기업에 공급(B2B)하는 것이다.
-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 23개소가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10개소(총사업비 70억원)를 최종 선정했으며, 전남 3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안 (주)에프엔디는 양파·단호박 등을 계약재배로 수집해 동결건조를 통한 분말 상태로 반가공한 후 (주)대상, (주)오뚜기, (주)아이베넷, (주)일동 등에 소재로 판매한다.
- 영암 한국제다영농조합법인은 직접 재배한 차(茶)를 분말화해 일본·싱가폴 등에 녹차라떼, 녹차스무디, 아이스크림 등 첨가물로 수출한다.
- 해남 땅끝농협은 450여 마늘농가의 원료를 받아 깎마늘·다진마늘로 반가공해 농협물류, 김치공장 등에 납품한다.
- 이들 기업은 연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은 전남 농산물 수요 확대와 수급 조절을 위해 꼭 육성해야 한다”며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급기지로써 국내 식품소재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100만 세대에 달하는 3대 생협, 전남의 청년농업인과 손잡다!

- 전남도는 25일 계약재배 등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 3대 생협과 농식품 가공·유통분야 청년농업인의 업무협약과 수도권 6개 유통기업과 대규모 구매약정을 함께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100만 세대에 달하는 전국 3대 생협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은 전남에 한살림은 함평에 참깨·들깨 유지류, 아이쿱은 구례에 밀, 두레생협은 해남에 유채 유지류 등으로 등지를 틀었다.
- 3대 생협이 전남의 청년농업인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망을 구축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나도 부농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 또한, 이번 구매약정 체결은 (주)쿵스토어광주·전남, (주)신선미세상, (주)우리밀급식, (주)신지원G&F, (주)시민방송 행복나눔 해피몰, (주)한경에프앤비 등 수도권 소비지 유통업체 대표와 해남우리밀, 해야영농조합법인, 한마음공동체, 땅끝황토친환경 등 도내 4개 생산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70억원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 특히, 이날 약정을 체결한 (주)신선미세상은 경기도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한 업체로 친환경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도내 생산업체와 구매약정을 체결하여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수도권 소비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 이날 약정식에서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이 더욱 크게 발전하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전남도 역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믿고 구매해 주시는 소비자와 유통기업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더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9. 해외 농업정보

◆ 대만, 12월부터 인삼 등 수입산 한약재 잔류농약검사 실시

- 대만정부가 최근 인삼을 한약재 수입검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12월 12일부터 잔류농약·중금속검사를 본격 실시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 수출업계의 주의 및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홍콩지사에 따르면 대만의 위생복지부는 최근 인삼과 서양삼·황련·방풍·진피 등 5개 한약재를 수입검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약재 수입검사 실시 규정’ 수정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2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 대만의 한약재 수입검사는 2013년부터 일반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대추와 두충·복령·천궁 등 10가지 한약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 이후, 지난해 6개 품목 추가 지정에 이어 이번에 인삼 등 5종류의 한약재를 포함해 총 21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수정안에서는 이산화황 검사가 잔류농약검사방법으로 새롭게 추가돼 함께 실시된다.
- aT 홍콩지사 관계자는 “대만은 우리 고려인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지만, 우리와 대만 간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성분검사 규정이 상이해 이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우리 인삼의 대만 수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출용 인삼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캐나다서 퓨전한식 인기

- 불고기샌드위치·컵밥 등 인기...한식 인기 발판삼아 시장진출 적극 모색 -

- 캐나다에서 퓨전 한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기를 발판삼아 한식편의식 등의 캐나다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캐나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 우리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활발히 전파되면서 한식에 관심을 갖는 현지인이 늘고 있다. 실제로 토론토 등 대도시에 위치한 한식당들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손님 대부분이 우리 교민이었으나, 최근에는 현지인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와 더불어 퓨전 한식을 선보이는 현지 음식점도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 동부의 위치한 뉴브런즈윅주의 피자전문점은 불고기피자를 선보여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글로벌 샌드위치 전문점인 서브웨이는 올 여름 특별메뉴로 제육볶음 샌드위치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이에 전문가들은 캐나다에서 한식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소비자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한식편의식의 캐나다 진출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즉석비빔밥과 컵밥 등 조리가 쉬운 편의식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 토론토 시내에 판매되고 있는 컵밥은 현지 언론매체를 통해 건강한 편의식품으로 보도됐다.
- 또한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식편의식 제품 정보가 공유되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함께 병행된다면 좋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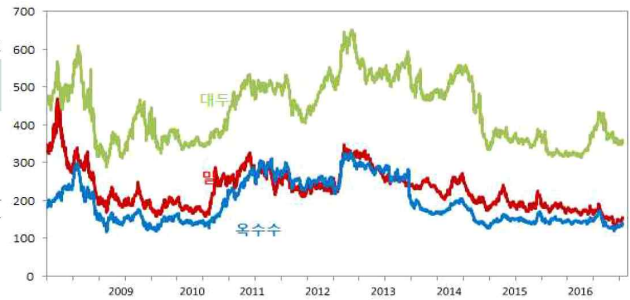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0. 24.(시카고 선물거래소)

건조한 수출수요로 전일 대비 상승한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0.21)	전일대비	전일평균 ('16.9)	2015 평균
밀	152.26	▼0.6%	144	186
옥수수	138.73	▲0.4%	129	148
대두	361.18	▲0.8%	356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최근의 활발한 수출 수요로 인해 장 초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풍부한 재고량으로 인해 장 마지막 하락 마감하였음. Rabobank 애널리스트는 "단기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해결되었으나, 우리는 국제 과잉공급이 주요 가격 조정자들에 의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호주의 싹 대두와 서유럽 지역에 내린 비가 또다시 밀 가격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여 전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대두의 상승세에 동조하며 전일 대비 0.4% 상승 마감하였음. 옥수수 가격 또한 풍부한 재고량으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강한 수출 수요가 압력을 상쇄하며 가격이 상승하였음. 옥수수는 또한 에탄올 시장에 의해 가격의 지지를 받았음. 미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에탄올 생산량이 지난 주 36,000B/d까지 증가하였다고 말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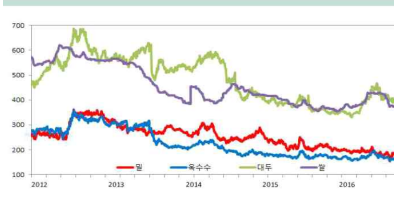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세션 동안 200일 이동 평균을 상회하며 전일 대비 상승하였음. 달러화 강세 및 풍작의 압력을 상쇄한 강한 수요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최근 낙관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대두 시장과 관련하여 분석 업체인 Informa Economics는 2017년 대두 파종량이 5.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반면 옥수수는 3.7% 하락 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대두박과 대두유 선물 가격 또한 상승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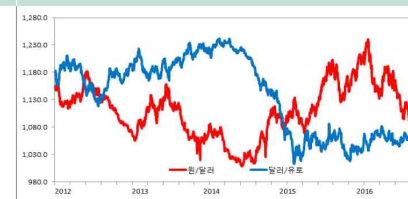
관련동향

- 걸프 만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풍작의 압력을 상쇄하는 중국의 건조한 수요로 인해 강보합세를 보임.
- 21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생산 동결 합의 기대 증가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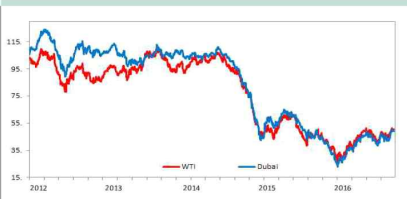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옥수수	164	▼1.2%		달러/유로	1.0927	▼0.5%
	대두	384	▼0.5%	국제유가	WTI	50.85	▲0.8%
	쌀	362	-		Dubai	48.82	▼1.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0.20(수출가격), '16.10.21(환율), '16.10.2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7년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신청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6. 10. 20.부터 11. 30.까지(42일간)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고, 토양개량제지원관련,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금년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누리집 국민의 눈높이로 새롭게 다가갑니다!

- Top 5 융복합 프로젝트, 반려동물 콘텐츠 신설... 예비귀농인 위한 정보 제공 등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0일 부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 개편한 누리집(www.rda.go.kr) 서비스를 열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콘텐츠를 보강하고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개편한 누리집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와 핵심어 형태로 정보를 배열하는 등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콘텐츠를 배치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획했다.
- 누리집의 주요 정보는 최신농업기술, 영농현안 해결 기술정보, 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창업농 성공사례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등으로 구성했다.
- 특히, Top 5 융복합 프로젝트, 반려동물 콘텐츠 신설과 함께 예비 귀농인 등에게 최근에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술과 전망이 좋은 소득 작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소통 큐레이션' 서비스를 연계했다. 소통 큐레이션은 누리집 이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등록하고 자신의 관심분야를 검색, 저장할 수 있다.
- 아울러 유용한 내용을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공유기능을 활용해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블로그 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촌진흥청 심근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앞으로도 누리집 방문 고객의 정보이용도를 분석하면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한글날 특집

□ 틀리기 쉬운 낱말 농업용어 (ㄱ~ㅎ)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1	잔디밭	잔디밭	26	텔레비전	텔레비전
2	잔치집	잔칫집	27	통채	통째
3	재털이	재떨이	28	통털어	통틀어
4	점장이	점쟁이	29	틈틈히	틈틈이
5	저의(희) 학교	우리 학교	30	파숫군	파수꾼
6	조무라기	조무래기	31	폭삭	폭삭
7	주책이다	주책없다	32	풋나기	풋내기
8	줏어	주워	33	풍지박산	풍비박산
9	지그시(나이가)	지긋이	34	하니바람	하늬바람
10	지리하다	지루하다	35	하마트면	하마터면
11	진도개	진돗개	36	한갓	한갓
12	짓궂다	짓궂다	37	한참이다	한창이다
13	짜집기	짜깁기	38	햇님	해님
14	째째하다	쩌쩌하다	39	해꼬지	해코지
15	찌게	찌개	40	헝가레	헝가래
16	창란(젓갈)	창난(창난젓)	41	허위대	허우대
17	치과	치과	42	헤메다	헤매다
18	치루다	치르다	43	호르라기	호루라기
19	체면치레	체면치레	44	혼줄나다	혼쫄나다
20	쳐들어가다	쳐들어가다	45	홀애비	홀아비
21	초생달	초승달	46	(생선)회집	횃집
22	춧점	초점	47	화일	파일
23	총뿌리	총부리	48	휴계실	휴게실
24	캠기다	캠기다	49	후드득	후드득
25	케참	케첩	50	휘둥그레지다	휘둥그레지다

* 출처 : 국립국어원





사과데이(10월 24일)는 사과 향기 그윽한 10월에
【둘(2)이 사과(4)한다】는 의미로, 친구나 애인끼리
서로 사과를 주고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107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